

## II 보험사기 개요

본장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보험사기의 의미와 유형, 발생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 1. 보험사기의 의미 및 유형

#### 가. 보험사기의 의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험사기의 의미에 대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었다. 학계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나 정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 정도로 해석되고, 보험범죄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경우도 많았다.<sup>2)</sup>

이후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조항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 나. 보험사기의 유형

보험사기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고의사고, ② 허위사고, ③ 사고내용 조작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① 고의사고 유형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험금 편취

---

2) 박세민(2009), 김영국(2022)

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살·자해, 살인·상해, 방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②의 허위사고 유형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이다.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해서 원래는 보상되지 않는 사고인데 이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여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허위사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겠다.

③의 사고내용 조작 유형은,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사고 자체는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이왕 발생한 보험사고를 과장하거나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수리비 과장 청구, 치료비 과장 청구, 평일 사고를 휴일 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II-1〉 보험사기의 유형

유형	내용
고의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자살·자해, 살인·상해, 방화 등)</li> </ul>
허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 (허위 사망,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도난 등)</li> </ul>
사고내용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 (수리비 과장 청구, 치료비 과장 청구, 사고 일자 조작 등)</li> </ul>

위 3가지 유형과 구분하여 볼 것으로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이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허위의 고지 또는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유형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행위 없이) 단지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보험사기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sup>3)</sup>

한편, 보험사기를 그 계획성·의도성 여부에 따라 경성 보험사기(적극적 보험사기; Hard fraud)와 연성 보험사기(소극적 보험사기; Soft fraud)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경성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연성 보험사기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성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자체를 계획적·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한 것이어서, 이를 행하는 자의 죄의식도 낮은 편이고 사회적 분위기도 관대한 경향이 있다.

## 2.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및 특성

### 가.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보험계약의 사행성, 보상심리, 사회적으로 관대한 분위기 등이 지목되고 있다.<sup>4)</sup>

우선,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고 등을 조작하여 일상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도 보험사기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3) 다만, 이 경우 형사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법, 민법, 보험약관 등에 기초하여 민사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는 있을 것이며(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등)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함

4) 금융감독원(2017), 보험연수원(2023)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보험사기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보험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아니라 경제적 강자인 보험회사의 돈을 조금 더 받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인식하여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이다.

## 나. 보험사기의 특성

### 1) 범죄의 복합·다양성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보험사기만을 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기를 위해서 살인, 폭행, 방화, 위조·변조, 증거인멸, 의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함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사기의 수법이나 행위의 태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2) 피해의 간접성 및 죄의식 약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험사기에 대해서 경제적 강자인 보험회사의 돈을 조금 더 받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선량한 전체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미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대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또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 3) 범죄의 조직화·지능화

단독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다수인이 공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

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보험모집종사자나 손해사정사 등이 업무상 지식과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의료기관, 자동차 정비업자, 브로커조직, 폭력조직 등이 개입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사·확인단계에서 발각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사기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수법도 치밀한 경우가 많다.